

샬롬! 주님 은혜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사조차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냥 늘 주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너무나도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코비드)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둠에 싸여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는 듯싶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네팔은 3월 중순부터 락다운(Lockdown)으로 모든 것이 멈춤 상태입니다.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아니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집 앞에서 식용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서로 수화로 의사소통할 뿐입니다. 집 밖 출입이 안 되고, 도로에는 운송 수단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안되므로 먹고 살 수 없어서 자살한 사람이 1,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네팔 신문에서)

네팔의 한인교회(선교사 모임)에서 재난구호기금을 모금(23.7락/한화 약 3000만원)하여서 목회자협회에 전달 네팔 목회자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비드 환우들은 오늘 현재 15,000명으로 집계되나 두메산골 지방은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르카 교회는 현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재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에서 3~4명씩 모여 예배를 드리는 형편입니다.

교회 건물에 후원해 주신 것으로 라면 50박스를 구입해서 끓여 먹이고, 약 절반 정도가 남았는데 주민들이 창문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오죽이나 배가 고프면 그렇게 했을까 싶어 가슴이 아파옵니다. 다만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가 빨리 네팔로 달려가 그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작으나마 라면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으나 하늘길이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경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락다운만 풀리면 교역자들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팔 주재 각 선교사님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거의 자국에 귀국하여 선교관 등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머물 곳이 없는 경우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중 간신히 귀국하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사태로 선교의 터전이 막히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며칠 전에는 서남아시아 지역 인도를 걸쳐 수억 마리 메뚜기(3그룹을 형성) 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왔고. 인도 북부지역(네팔 포함) 홍수로 인하여 수백만 이주민 발생, 서남아시아에 얹힌 데 덮친 격입니다.

인도에서 많은 인원이 네팔로 유입되어 더 많은 코비드 환자가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방이 안 좋은 소식들이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시는 듯싶어 더 겸손하게 행동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며 기다립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62편:6~7) 말씀 붙들고, 잠잠히 두 손 모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신: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7월 1일 부터는 (밤 22:00시~ 새벽 5:00시까지 차량 및 인원통행 금지) 도로를 개방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와 네팔 국민들이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 일상으로 복귀되게 하소서.
2. 굶어 죽어가는 네팔 주민들이 줄어들고, 서로를 원망이 없게 하소서.
3. 네팔 교회가 굳건히 지켜지고, 복음의 불모지가 더욱 확장되고, 살릴 수 있게 하소서.
4.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소서.
5. 저희 부부가 건강하게 네팔로 속히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2020년 6월 30일

안원석, 박미현드림.